

우리가 꿈꾸는 '無等', 유토피아 세상으로...

국윤미술관, 내일부터 '홍림창작스튜디오' 창작결과물 발표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간직한 채 광주를 품고 있는 무등산 그리고 여기에 얽힌 무등에 대한 작가들의 예술적 사유가 전시로 펼쳐진다.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국윤미술관 제 2전시실에서 열리는 창작결과물 발표전 '무등 유토피아' 전시다.

국윤미술관은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후원으로 2024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광주 거주 청년 작가들에게 '홍림창작스튜디오'라는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 중 '무등산 예술 산책'은 작가-기획비평가 매칭을 통해 청년 작가의 창작, 장기적인 발전 토대와 함께 이들이 상상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예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창작자와 기획비평가가 함께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의 대상이자 상상력의 무한한 원천인 무등산에 대한 지역적 가치와 의미를 제고, 더 나아가 지역민들과 향유하고자 한다.

'무등산 예술 산책' 제1기 입주작가는 손지원·엄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이곳에 입주해 창작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약 3개월간 작업해온 작품을 '무등 유토피아'라는 주제에 따라 선보인다.

전시 주제인 '무등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공



엄기준 작 '캐피행성 - 수달 친구들'

손지원·엄기준작가-최송아기획비평가매칭 무등산 지역적 가치·예술성 담아낸 작품 전시

간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두 작가는 각자의 유토피아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손지원 작가는 무등산 풍경을 섬세하게 살피면서 사소한 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그려낸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한 자연에서 묵은 자들의 존엄을 포착했다.

엄기준 작가는 인간화된 무등산 수달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얽힌 관계를 조형 작품을 통해 표현했으며, 자본주의에 잠식된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술의 현주소를 폭로하고 있다.



손지원 작 '지치않는 빛들'

<국윤미술관 제공>

전시 기획을 맡은 최송아 평론가는 "이들 작가가 바라본 무등(無等)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혹은 등급을 초월한 최고의 정도를 말하지는 않는다"며 "작품 속 무등은 자연의 법칙으로 가장한 오늘날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의 불평등과 위계를 넘어서는 '등급 없음'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운영팀 국윤미술관장은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무등의 정신이 의미하는, 즉 등급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시간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자신이 꿈꾸는 평등의 유토피아가 어떤 모습인지 찬찬히 살펴보고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연과 인간, 그사이... '남겨진, 그리고 남기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다양한 예술적 표현으로 풀어낸 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주안미술관은 다음달 16일까지 김무아·윤우제 2인전 '남겨진 그리고 남기는'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 동구가 지원하는 미술관 박물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연과 인간, 그 사이 남겨진 흔적과 남기는 행위들을 통해 그 관계를 조명한다.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을 성찰하면서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김무아 작가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인류세'를 다룬다. 그의 작품은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김무아·윤우제 2인전...내달 16일까지 주안미술관



김무아 작 '툰드라의 노란 강'



윤우제 작 '선인장을 마주한 북극곰'

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인간 문명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특히 툰드라 지역의 기후와 생태계 변화를 담은 작품들이 주요 전시작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작가는 툰드라 풍

경이 알록달록하고 낯설게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멸종 위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윤우제 작가는 2018년 사하라 사막에 내린 눈을 주제로 '편집된 생태계'를 그려낸 다. 이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동시에 기후위기의 경고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인류세'를 주제로 한 작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며 '인류세로부터' 시리즈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작업에 경직성을 느끼며 2020년의 초심을 되새겨 '이상한 풍경'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송진주 주안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인간 문명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예술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인류가 자연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전달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이며, 전 연령층 관람 가능하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15일까지 총감독 제공모 접수

전남문화재단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 제공모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총감독 응모 희망자는 전남도, 전남문화재단,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서, 전시계획서 등 준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1차 면접과 최종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수목비엔날레는 수목이라는 특수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의 패러다임이 교차하는 현대미술 축제이자 미학적 사유의 장"이라며 "회를 맞이하는 2025 수목비엔날레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성숙하는 공동 경험의 장이 되고자 총감독 선임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시와 진도군 등 전남 일원에서 수목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학술심포지엄, 국제레지던시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

광주신세계갤러리가 광주·전남 지역의 젊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해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미술제는 지난 21회부터 신진작가 발굴과 창작지원 강화를 위해 수상작가 창작 지원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올해 미술제부터는 상금을 500만원 증액해 대상 수상작가에게 상금 2천만원, 신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 상금을 수여한다.

오는 21일까지 광주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자는 다음달 말 1차 선정작가전을 거쳐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백지홍 광주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는 "20년 넘는 세월 이뤄온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문화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 지역 문화와 미술계의 네트워킹 강화에 앞장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시아서석문학 하계문학캠프

아시아서석문학이 주최·주관하는 제13회 2024 하계문학캠프가 오는 13-14일 해남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광주문단 및 전국 문인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는 첫날 개막식과 함께 동원 70호를 발행한 계간 '아시아서석문학' 여름호, 시조 전문지 '時潮' 장간호 출판기념회를 겸해 열린다. 이어지는 순서로 '오늘의 시조와 전방'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문학적 충전과 교류, 친목을 증진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강진 백련사 및 다산초당, 영랑생가, 시문학기념관과 강진청자박물관을 탐방할 예정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서석문학(062-223-8816)에 문의.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